

건강 칼럼

전립선비대증 젊은층 환자 늘어... 일교차 크면 증상 악화

과거 중장년층 이상의 남성
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전
립선비대증이 젊은층으로
확대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
르면, 전립선비대증(전립선증식증)
으로 병원을 찾은 30대 이하 환자는
2014년 1만2006명에서 2018년 1
만5997명으로 5년 새 약 33% 증가
했다.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호도
알만한 크기의 호르몬 기관이다.
정액의 일부를 생성해내는 역할을
한다. 방광의 바로 아래에 붙어서
후부 요도를 둘러 싸고 있다. 전립
선이 비대해지면 후부 요도를 압박
해 소변 출기를 막아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게 된다.

소변 출기가 가늘어지고 화장실
에 가서도 한참 머뭇거리야 소변
이 나오며 뒤에 누구라도 있으면
소변이 더욱 나오지 않는 증상, 소
변을 보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남아 있는 듯하며 자주 마렵고 특
히 밤에는 수차례 화장실에 가는
라고 잠을 설칠 때가 많다면 전립

선비대증을 의심해볼 수 있다.
요즘 같이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향을 보
인다.

실제로 국내 비뇨의학과 교수팀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
용해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일교차가 14도
를 초과할 때는 일교차가 4도 이
하일 때보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
가 약 48% 더 응급실을 찾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안드로겐이라는 남성호르몬 이상
과, 노화 외에도 인종 유전적, 체
질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

다. 50대의 경우 남성의 절반이 경
험하게 되고 80대가 되면 발병 확
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흔하지만
병원을 찾는 환자는 20~50%에 불
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년층 이상의 경우 오랜 기간
에 걸쳐 서서히 진행돼 노화로 인
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간과하
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젊은층
은 전립선 비대증을 노화질환으로
여기고 안일한 생각으로 이상 신
호를 놓치기도 한다. 하지만 증상
을 방지하면 신장이 소변 역류로
인해 팽창해 수신증 및 요독증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전립선의 크
기가 그리 크지 않다면 간단한 약
물요법만으로도 쉽게 호전되는 편
이다. 하지만 방광 기능 장애나 전
립선 안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므
로, 환자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거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진단방법은 다양하다. 병력에 대
한 조사에서부터 증상점수표 검사
(IPSS), 직장수지 검사(DRE), 요류
속도 검사 및 잔뇨량 측정,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 PSA/전립선
특이항원 측정, 소변검사, 혈청 크
레이티닌 검사/신 기능 검사 등이
다. 배설성 요도 조영술, 복부 초
음파 검사, 방광경 검사 등을 시행
하기도 한다.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배뇨 장애로 방광 기능이 악화되
고 나아가 신장 기능까지 잃을 수
있다. 이상 증상이 보인다면 미루
지 말고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료
진의 정밀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중 권

유쾌한비뇨기와 인천송도점 원장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스누피와 아이스링크 개장 축하하는 킴벌리 나바로



이이스덴서 킴벌리 나바로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백악관 사우스포에 마련된 '백악관 홀리데이 아이스링크'에서 스누피와 함께 얼음을 지치고 있다.

5만여 LED 전구 빛나는 화려한 크리스마스트리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록펠러센터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이 열려 크리스마스트리가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높이 약 25m, 무게 12톤의 노르웨이 가문비나무에 5만여 개의 다양한 LED 전구로 장식된 이 트리는 내년 1월 13일까지 불을 밝힌다

사설

재택 근무제 문제

정보기술(IT) 업계에 재택근
무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
나19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도
입에 앞장선 IT 기업들이 최근
다시 사무실 출근으로 근무 방
식을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무실 출근이 더 효과적이란
것이 회사 측 판단이다. IT 기
업은 올 3월부터 '오피스 퍼스
트' 근무제로 전환했다.

사실상 전면 출근제를 시행한
것이다. 이는 다른 곳에도 영
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렸다.
전립선 초음파 검사, PSA/전립선
특이항원 측정, 소변검사, 혈청 크
레이티닌 검사/신 기능 검사 등이
다. 배설성 요도 조영술, 복부 초
음파 검사, 방광경 검사 등을 시행
하기도 한다.

해외 상황도 비슷하다. 마이
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기
업들은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디즈니와 트위터 등
사무실 출근을 강제하는 기업
이 늘고 있는 추세다.

IT업계가 출근 강화에 나서는
것은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관
단 때문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
부 돌발 변수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
다.

다만 지난 3년간 직원들이 재
택근무의 효율성을 경험한 만
큼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데에
는 상당한 반발도 있다. 오피
스 근무제 이후 노조 가입률도
상승했다.

한 달 전까지 40%대에 머무
르던 어느 기업 분사 직원들의
노조 가입률은 50%를 돌파했
다.

업체들은 경쟁사 등으로의 인
재 유출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효율성
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나 점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에 대해 반감이 적지
않다.

전주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전주시가 장애인 일자리를 확
대할 계획이다. 2024년도 장애
인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333
명보다 33명 늘어난 366명 규
모로 추진한다. 분야별 일자리
규모는 △일반형 일자리(118
명) △복지 일자리(225명) △
특화형 일자리(43명) 등이다.
일반형 일자리의 경우 시청과
양 구청, 주민센터, 장애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공 및
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지원하
게 된다. 전일제는 주 5일 40
시간, 시간제는 주 5일 20시간
을 근무하게 된다.

복지 일자리 참여자는 복지시
설과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유형별로 적합한 일자리에 배
치될 예정이다. 또 특화형 일
자리로는 경로당 등 복지시설
에 파견돼 일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18명),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전문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25명) 등이 제공된다.

자책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
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다.
사업 참여 경력과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기준으로 선발
한다.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이 있는 자 △타 재정지원 일
자리 사업 참여자 △장애인일
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장기요양등급판정
을 받은 자 등은 신청 대상에
서 제외된다.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는 35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복지·특화형 일자리는 전북장
애인복지관과 전북지체장애인
협회, 평화사회복지관, 사회적
협동조합 등 위탁 수행기관에
서 별도 모집한다.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할 때이
다. 사업 참여 인원도 늘려 제
공하는 일이 절실하다. 지속적
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